

‘익투스 콘서트’ 남가주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다

러빙워십 주최 익투스 콘서트
조혜련 집사, 브라이언 킴
간증 및 찬양 인도

브라이언 킴, 장로님에게 묻다

“전세계에 K 가스펠, 교회를 세우신 외국 선교사가 계셨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비비고 만두가 됐다. 한국과 이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다. 복음을 한 명에게라도 전하는 이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을 벌 때 주를 위해, 찬양할 때 주를 위해, 교회를 세울 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는 진정한 예수쟁이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고등학교 때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교회 왜 다녀’, ‘엄마 왜 찬양해?’ ‘나도 만나고 싶어.’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다. ‘교회 가서 장로님에게 물어봐.’ 저는 장로님이란 단어를 몰랐다. 장로님에게 ‘장조립’이라고 불렀다. 장로님에게, ‘how can I know that Jesus is real?’이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러셨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 겨울에 장로님이 모는 벤을 타고 수



조혜련 집사와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킴이 러빙워십 팀과 함께 남가주 교회에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했다. ©기독일보

련회에 가서,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지난 10월 4일(토) 오후 6시 30분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는 최근 ‘성경 바람잡이’로 활

발하게 활동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혜련 집사와 브라이언 킴이 러빙워십 팀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했다.

이 행사는 러빙워십의 비전과 혁신

이번 행사는 문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는 문화사업 단체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의

기도와, 팝,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셉 리 목사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 러빙워십 스텝들의 열정적인 혁신이 이 행사를 뿌리아 바탕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표식인 ‘익투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며, 세대와 환경을 초월해 함께 예배하기 위해 열렸다. 이 행사를 준비한 러빙워십은, “매 단계마다 준비하는 분야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쏟아졌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돌파하고 또 이겨나가며” 이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조혜련 집사는 남다른 에너지와 텐션, 유머와 재치로 관객의 마음을 쥐었다 했다. 그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2년 전 신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어머니와 함께 새생명비전교회를 방문했던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설교 페스티벌 10/18 나성순복음교회서

남가주 한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남가주한인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한기홍 목사)가 주최 및 주관하며, 이번 설교 주제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로 분량은 12분(레터사이즈 2-3페이지)이다. 김민선 기자 →3면에서 계속

아프리카 목사, 20만 명 목회자 양성 계획 밝혀

케냐 아프리카 국제대학교
부총장, “복음의 폭발적 성장
대응 위해 목회자 훈련 필요”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의 급격한 성장세 속에서, 케냐의 신학자 이자 목회자 넬슨 마칸다(Nelson Makanda) 목사가 향후 5년간 20만 명의 목회자를 훈련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나이로비에 위치한 아프리카국제대학교(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AIU)의 부총장

으로, 아프리카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 기반과 현장 훈련을 강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마칸다 목사는 미국의 에이즈 구호 프로그램인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관계자들을 만나 케냐 내 지원 중단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미국의 원조 중단 이후 케냐에서는 HIV/AIDS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마칸다가 섬



나이로비 아프리카국제 대학교.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기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승연 기자 →19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한 법률상식
마동한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한 변호사 그룹 213.820.3704
마동한 변호사 그룹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클라 설비의 간접상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baeksong.kr
2025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A church where miracles are real
LA백송교회 Lily Pine International Church
Spirituality Festival
찬양과 말씀의 향연

Praise
기쁨부으심이 넘치는
이순희찬양콘서트
Victoria Lee Praise Concert
10/25/2025 (SAT) 3:00 PM

20th
기적, 변화, 치유의 현장
성령컨퍼런스
20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26/2025 (SUN) - 11/5 (WED) 7:30 PM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Pastor . Daniel Kim
백송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Pastor . Victoria Lee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213-249-4790

밀알의밤, 세밀한 돌보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남가주 밀알 선교단 주최
ANC온누리, 남가주동신교회
1,200 여명 참석

장애인 선교단제인 남가주밀알 선교단에서 주관한 '2025 밀알의 밤'이 '돌보심(베드로전서 5:7)'이란 주제로 10월 3일(금)과 5일(주일) 이틀 동안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와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밀알의밤 메인캐스트는 배우 '오윤아' 집사는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송민'군을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오윤아 집사는 '돌보심'이란 이번 밀알의밤 주제처럼 모든 염려와 불안을 거두어 가지고 한없는 평안과 위로로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전했다.

지난 젊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로부터 간증을 시작한 오윤아 집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머니가 교인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아 한동안 교회를 쉬었다고 했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던 차에 어느 노방전도자

를 통해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너를 일으켜 세 우리라"라는 음성을 듣고,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배우로 데뷔하여 무명시절 없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결혼해 임신을 했는데,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 중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태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쳐 결국 아들 민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 절망과 함께 아들이 장애인이 된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분의 손길이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오윤아 집사는 비록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큰 보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주관한 '2025 밀알의밤'이 돌보심이란 주제로 ANC 온누리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남가주 밀알 선교단 제공

람을 느꼈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윤아 집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에 절망이나 두려움 없이 소망에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참석자들에게 격려하고, 자폐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깊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길 당부했다.

오윤아 집사의 감동적인 메시지

에 약 1200명이나 되는 참석자들

(ANC온누리교회 400명, 남가주동신교회 800명)은 큰 은혜를 받고

큰 박수로 환호했다

밀알 장학생 소개 영상에 출연한 '제시카송' 자매는 다운신드롬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맑고 순수한 신앙과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으며, '남가주밀알 수어찬양단'은 바쁜 일상 속에서 수어찬양곡 <나의 하나님>을 열심히 연습해 최상의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제시카송 자매를 비롯해 마이클

림 형제, 윤진아 집사, 이유리 간사,

송영석 전도사 등 밀알 단원들이

함께 헌금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불러 은혜를 더해 관객

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025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 밀알선교회는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밀알선교단이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전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긴장한 혼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 이번 밀알의밤 주제 성구 베드로전서 5:7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완전히 맡기길 바라며, 오윤아 집사가 아들 송민 군을 정성껏 보살피듯 우리 밀알선교단도 장애인들을 더욱 열심히 채어하며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이윤준 기자

→1면 기사 <익투스 콘서트>에 이어서, 77년 고집 강인 엄마, "네가 믿는 예수님 내도 믿을란다"

조혜련 집사는 7년 전 그가 새생명비전교회에 간증 집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변줄을 차고 훨체어를 탄 어머니가 동행했다고, 그때 마침내 어머니의 오랫동안 갚이지 않던 고집이 깨었다고 말했다.

"그선교사님이 엄마에게 물으셨다. '삶이 어때요?' '많이 안 좋소. 내 몸도 이리 망가지고, 애들도 힘들게 살고, 막내 아들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제가 그 막내 아들 개인화 할게요, 인간이 만든 우상 섬기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 밤에 소변을 빠주려 엄마 방에 갔는데, 엄마가, '앉아 봐라' 하셨다. '왜' 그랬더니, '내가 몇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뒤돌아 봤는데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내도 믿을란다.'"

조혜련 집사는, 그날 밤, 엄마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그로부터 7년 1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 성경은 80번 읽으셨다. 엄마가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궁금했던 조 집사는,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다.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가 77년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되고 되돌리고 싶다. 근데 되돌릴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 말씀 하나님을 불들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기다."

조혜련 집사는 자신의 '기도노트'를 펼쳐서 보여주며, 그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최근 개그맨 전유성 씨 역시 임종을 앞 두고 며칠 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나눴다.

그는 폐기흉으로 위독해진 고(故) 전유성 씨가 성경을 읽고, 오디오 성경을 들으며 마지막을 보냈다며, 마지막으로 그와 나눈 대화를 전했다.

"성경책을 읽는데 글씨가 작아 서 믿기 15장까지 밖에 못 읽었

어, 내가 시간이 그리 없는데 어찌 하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디오 성경을 드렸다. 근데 오빠가 뭐라고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이어서 브라이언 킴이 무대에 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Way Maker', '주가 일하시네' 등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눴다. 그는 한국어를 잘 몰라 영뚱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한 일, 토이저러스(ToysRUS)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에, 한창 사춘기 때, 교회 찬양대회에서 동생과 찬양하며, 울동한 기억들을 나누어 관객을 폭소로 이끌었다. 최근 집회에서 받은 아이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나눴다.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다음 세대와 춤추며 뛰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얼마전에 시카고에 갔다왔다. 시카고에 앞자리에 열 살 꼬마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가 집회가 끝나고 편지를 줬는데, 저한테 이렇게 썼다. '브라이언,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런 생각

을 갖으면 안되는 줄 아는데, 가끔 살고 싶지 않아요.(Brian, please pray for me. I know I shouldn't think like this, but sometimes I don't want to live.) 전주에 어린 이성경학교에 갔는데 한 아이 끝나고 편지 줬어요. '브라이언 킴 목사님께,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킴은 그의 대표곡 '주가 일하시네'에 얹힌 사연을 전했다.

"주가 일하시네 발표하고, 사기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저는 주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10년 전이다. 다시 남가주에 LA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일하신 줄 믿는다."

이어서 조혜련 집사와 러빙워십 팀이 함께 무대에 올라 '생명 주께 있네'를 앵콜곡으로 찬양한 후 강준민 목사의 마침 기도로 모든 집회 순서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인 10월 5일(주일) 오후

7시 30분에는 두번째 익투스 콘서트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되어, 남가주에 은혜의 물결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익투스 콘서트는 10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러빙워십은, "문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기 소망한다"며 교회연합과 복음의 열정의 회복을 위해 문화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빙워십이 남가주 교회를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행사, 연극 '사랑해 엄마'(조혜련 출연, 연출)가 다우니 극장(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에서 열린다.

연극 <사랑해 엄마> 공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2일(주일) 오후 7시

10월 13일(월) 오후 2시, 오후 7시

문의: 213-357-1565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BTS
SOLAR
DESIGN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고역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olars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아름다운교회 안수임직예배, “하나님께 드린 헌신만이 영원히 남아”

총 21명의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 받아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5일 오후 4시에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이날 ‘하나님 나라의 일꾼(사도 행전 8:26-31)’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남가주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는 “하나님의 전략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며 “오늘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는다”고 했다.

박 목사는 “임직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른 동기와 순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동기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내려가 큰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로 나가 애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빌립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빌립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였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광야의 길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라고 명하셨다. 많은 사람을 두고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빌립은 순종했고 그곳에서 한 사람, 애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변화시키셨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로 비전의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가사에서,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다. 멈추지 않고 가며 주의 사명을 완수했다”며 “우리도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성공자가 아니다”라며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헌신만이 영원히 남는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하 목사(샬롬선교침례교회)는 권면에서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이것 못한다면 하지 마십시오”라며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목회는 복 중의 복이며 은혜 중의 은혜였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흔들리지 말라. 오직 목양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직분자들에게는 “교회를 위해 인생을 거십시오. 내가 왜 안수를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5일 오후 4시에 목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기독일보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분 같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사역하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권면을 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안수집사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자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도 일곱 안수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었다”며 “오늘 귀하게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 마음으로 섬겨온 분들이다. 수양관에서의 수련회 때 새벽까지 섬겨주신 집사님들을 보며,

‘이분들은 이미 안수집사구나’ 느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 가야 한다”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순교의 삶”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를 한 한상호 목사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잊지 않겠다”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동엽 목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경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일”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죄 사함의 축복임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제 신앙 여정의 진정한 출발이었다”고 했다. 이어 “섬김의 도를 여러분에게 배우며,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목사 3명, 안수집사 5명, 권사 5명, 명예권사 8명 등 총 21명이 임직을 받았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

→1면기사 <설교페스티벌>에 이어서 설교 본문은 (구약) 왕하 18:6, 느 4:15~23, 시113:1~3, 렘 50:5, (신약) 마 18:19~20, 요15:1~8, 골2:2~3, 골 2:19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금은, 설교 우수상 수상자에는 2,000불, 모범상 주해상, 전달상, 비전상, 발전상, 은혜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1,000씩 수여된다. 설교 페스티벌 참가하는 신학대학은 1,000불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지도교수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추천인, 그리고 각 대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청중평가단을 3명씩 추천하여 참석하게 된다. 각 청중평가단들은 가장 우수한 설교 페스티벌 참가자에게 1점씩 점수를 줄 수 있다.

연락처: 성시화운동본부
holycitymovementus@gmail.com,
213-407-4569.

연세대 동문회, 오는 25일 ‘건강박람회’ 개최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10월 25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에서 ‘연세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는 1885년 한국 최초 근대식 서양 의료 기관으로 설립된 광혜원(제중원)에 두고 있다. 이 기관을 설립한 기독교적 정신과 사랑·봉사·헌신의 가치가 이번 건강박람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는 약 2,000명의 연세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의과대학·간호대학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동문회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으로 건강박람회를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주요 내용은 ▲내과·안과·소아과·정신과 등 전문 분야의 건강검진 및 상담 ▲독감 예방접종, 간염 및

혈당 검사 ▲치매·우울증·불안증 진단 ▲건강 관련 세미나 등이다.

남가주 동문회 측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 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뿐 아니라, 준비된 기념 선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박지나 흥보·미디어 담당(310-293-5054, yonseiconnectsc@gmail.com)에 게 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세계 교육 선교회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COREA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척박한 선교지를 건강한 신앙 교육으로 섬깁니다.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선교지에 학교, 방과 후 학교, 대안학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후원하며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합니다.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수리남 등지에 학교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입니다.

세계교육 선교회(COREA)는 한국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COREA (Charity Organization for Relief and Education Aid)를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한성도 목사



후원이사장 정재원 목사



홍보 이사장 이종용 목사



상임이사 박성호 장로



상임이사 유우식 장로



대표 강태광 목사

후원 : COREA 세계 교육 후원회 (농협 301-0365-1167-81)

서울 양천구 지양로 9길 3층 302호(신월동) 연락처 : 한국 010 8113 9100 미국 323 578 7933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목사 담임목사 취임예배 드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라 미라다 (La Mirada)에 위치한 좋은나무교회(신윤석 목사)가 10월 5일(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신윤석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인들과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심삼열 전도사의 인도로,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김원일 장로의 대표기도 후 성경봉독(요한복음 10장 10~17절)에 이어, 노진걸 목사(풀러턴장로교회 원로목사, KPCA증경총회장)가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 목사는 "참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전하며 "목회자는 교회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 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집례자 노진걸 목사의 인도로 예식이 진행되었다. 예식 이후 이상명 목사(프레스티지대학교 총장)가 축사를 전하며 "좋은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 목사



좋은나무교회가 10월 5일(주일) 오전 11시 신윤석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좋은나무교회

님을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면은 흥명의 목사(PCUSA 남가주하와이대회 총무)가 전했다.

홍 목사는 "목회자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찬양대는 '주의 은혜라'를 특송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올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주성기 장로(새생명선교회 이사장)가 기금전달을 했으며, 신윤석 목사가 취임 인사를 전했다. 신 목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겠다. 겸손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베헤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고 간절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는 교회 성장과 활동, 즉 doing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이제는 being에 집중해야 한다. 관계와 사랑에 기초한 목회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풀러신

학교에서 교차문화연구석사(M.A.)를 취득했다. 신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풀러신학교에서 교차문화연구석사(M.A.)를 취득했다. 신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풀러신학교에서 교차문화연구석사(M.A.)를 취득했다.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D.Min.)를 취득했다. 그는 나성영락교회 부목사와 애너하임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긴 바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신숙영 사모와 자녀인 신요한 군이 있다.

예배는 이종희 집사의 인사 및 광고 후, 김대평 목사(나성한미교회 원로)가 축도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교제의 시간 속에 신임 담임목사와 교회를 위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좋은나무교회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신임 담임목사 취임을 계기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셉 리 기자

주소 :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교회 웹사이트: www.goodtreefellowship.com

주일 예배 10:00 AM

수요 예배 7:30 PM

화-금 새벽기도회 5:30 AM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나 다시 부르심에 응답”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 ‘늘 새롭게’ 간증 전해

이야기와 목회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다.

최 목사의 이름 '권능'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어머니는 네 차례의 유산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다.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끝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최권능 목사다. 그는 "제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부담스럽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는 그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존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났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자신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는 사실에 반발심을 느꼈다. 어머니가 하나님과 한 서원 때문에 본인이 목회의 길로 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그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지 제 뜻이 아닙니다. 저는 빼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반항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으셨다. 오히려 "이제는 너와 계약을 갠신하겠다"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서원이 아닌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고,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분의 권능으로 시작된 인생이라는 정체성이 제 목회 여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 최 목사는 나성서남교회에 부임했다. 교회가 취임예

배를 준비하고 있던 때는 2020년 3월. 하지만 바로 그 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셧다운' 명령이 내려졌고, 교회의 문은 닫혔다.

"예배당은 텅 비었고, 카메라 한 대만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교인들이 허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안의 불순물을 태워내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그 시절, 그는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을 다시 불들게 되었다. 성도의 수나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불드는 신앙으로 교회를 이끄는 훈련이었다. 최 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목회가 아니라, 광야의 잡초 같은 목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오

하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잘 믿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 부르심을 불들고 달려가자고 다짐합니다."

간증의 마지막에서 최 목사는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맨 기자

주소: 16100 Crenshaw Blvd.

Gardena CA 90249

교회 웹사이트: www.kcswla.com/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2026 HYUNDAI Elantra Hybrid Blue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풍성한 혜택
가을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in BUENA PARK**

2025. 11. 03 (월)
오전 10시 샷건
오전 9시까지 체크인

골프 대회 참여 정보

참가비 \$180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 & 디너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대회주소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오늘의 스코어? 선물 한가득 가져가셨습니다~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아시아나 LA - 한국 왕복 항공권
다이아 목걸이
정관장 홍삼 세트
폴라리스 성형외과 상품권
K-Beauty 성형외과 상품권
남 / 여 사우나 입장권
가부키초스시LA 식사권
청운부페 식사권
올림픽골프 상품권 + 골프용품
Park Golf 골프용품
Berryland 건강 제품
포크벨트 천연가죽벨트 등등

총 \$2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실력과 상관 없이 참가자 전원 모두에게 함께 나눕니다!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품 목록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참가 문의 (888) 847 - 3098 · 9 AM - 5 PM (월 - 금)

후원

ASIANA AIRLINES

BERRYLAND
fresh and delicious

포크벨트

가부키초스시

JUNG KWAN JANG

K-Beauty 성형외과

OLYMPIC GOLF SINCE 1983

PARK GOLF.AI

Polaris
medical aesthetics

목회자들에 '시계' 보다 '나침반' 돼줄 것... 설교, 신양인 넘어 교양인 길러야

2026년 목회 화두, '상식과 시민'
극단 아닌 균형, 설교 본질 회복
기독교 호감도 9%? 성찰 시급
번영신학 부작용, 급성장 추락
상식 존중 신앙, 공공성 회복으로
백 투 초대교회? 지역에 뿌리를
기독교, 극우 아닌 보수 회복을
설교, 시민 의식 중요성 언급을
목회트렌드2026 저자 김도인 외
글과길, 370쪽, 22,000원



▲ 『목회트렌드 2026』 저자들. (왼쪽부터) 박혜정 선교사, 권오국 · 이상갑 · 김도인 목사, 김민석 교수.

인 둘 사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갑 목사: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상태가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좋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불신자들의 기독교 호감도는 9%에 불과합니다. 91%가 호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애말로 '폭망' 수준이죠.

지금은 자녀가 교회 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에게는 '교회 가라'고 했죠. 교회에 소망과 가능성

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성찰하고 통찰할 때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고지론(高地論)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富) 등이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일종의 번영신학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독교는 더 급격하고 빨리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좌든 우든 극단적으로 가거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존중하고

면서 이를 초월해야 기독교다운데, 상식은 없고 초월성도 빠져 버린다면 진정한 기독교다움이라 보기 힘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기도 힘들겠죠. 교회가 극단화를 멈추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상식을 존중하면서 설교를 통해 건강한 공공신학적 기초 위에 풍부하게 뿌리내리고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

지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 성찰을 책을 통해 던져봤습니다.

김민석 교수: 교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돌아가려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나 한국의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는 당시 지역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산에 건물을 짓고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거룩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는 동네 안에서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룹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과 교제하기보다 담을 쌓으려 합니다. 세상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채 교회에만 머무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여기기도 해요.

매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하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지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에서의 공적 역할이라는 양 날개의 균형을 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란받고 있는, 그런 이중적 모습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중적'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만 보고, 상대할 곳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세상의 일

반 시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적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다가가서 환대하고 섬기는 모습이 회복돼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오국 목사: 설교자는 성도들을 선교적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 세 가지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설교자의 리더십과 메시지가 변화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를 넘어, 회중을 세상 속 선교사로 파송하는 '코치'가 돼야 합니다.

둘째, 설교자는 예배와 설교를 통합해 유행을 교정하는 영적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설교는 단지 귀로 듣는 정보가 아니라, 찬양과기도, 성찬으로 이어지는 예배 흐름 속에서 성도들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설교자는 상상력을 통해 설교해야 합니다. 시인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합니다. 딱딱한 교리 설명 대신, 성경 내러티브와 생생한 이미지, 강력한 은유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소망 있는 곳인지를 그려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나라를 '욕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타 트렌드 도서들과 달리, 목회 트렌드 시리즈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김도인 목사: 기독교는 보수여야지, 극우가 돼선 안 됩니다. 뛰든 극단은 문제가 있죠. 교회 일부가 정치화됐고, 반신앙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희망이 없죠. 비

상식적이고, 말이 안 통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인들은 상식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정답은 '설교'에서 찾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영적 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 교회를 나가는 순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의 삶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올해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른 트렌드 도서들은 그 바탕에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고민을 갖고 목회할 것인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서,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4년째 됐는데, 10년은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시도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들을 저자로 모시지 않느냐는 말도 과거에 들었지만, 세 번째 시리즈 이후로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네요(웃음). 그래서 더욱 도전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좀 받으셨는지요.

김도인 목사: 현장에서 고민하는 담임목사님들이 즐겨 보신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트렌드 시리즈가 설교를 준비할 때 좋다고 하십니다. 교회 표어를 잡을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목사님들이 좋아서 추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상갑 목사: 저는 '시계와 나침반'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가 시계라면, 저희는 나침반이죠.

목회자들이 시계만 계속 쳐다보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거나 현상과 상황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회트렌드 시리즈를 접할하면서 '시계보다 나침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접할하면서 회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장기적 관점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침반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고 변화와 혁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목회에 대해 고뇌하고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접근이 다소 불친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민석 교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 자리나 논문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만, 표현 방법을 다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어휘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논의할 수 있지만, 폭력적·강압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아닐까요? 대화와 타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

나라는 크리스쳔덤 국가가 아니고,

〈다음호에 계속〉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짚힘

장점2
커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배안호 선교사(영국 선교사) 서평] 성경, 빅 픽처를 보라!(김인식, 두란노, 2021)

성경,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 대체신학은 비성경적

"성경 핵심 키워드 3개는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빅 픽처를 한 눈으로 본다"

들어가는 말(서론): '독수리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조망(眺望)해주는 책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Big Picture)'으로 보여주는 '믿음 직스러운 책'이 있을까?"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1,800번)의 스토리이다. 그 위대한 스토리의 두 축은 예수의 초립과 재림이다. 성경은 하나님 이 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2,300번) 이야기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예루살렘'(1,000번)을 중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된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 주제를 Q&A(Question & Answer) 형식을 빌려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고자 합니다."(저자 서문, p. 25, 전체 269개의 Q&A가 암권이다)

서평자는 지난 50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그림의 책'을 찾고 있었다. 교리와 신학의 다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빅 픽처를 조망하는 책! '대체신학'의 뿌리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오랜 시간 필자가 찾던 그 책이 바로 본서이다.

"신학적인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하여 부록에서 '대체신학과 회복신학'을 다루었습니다. (중략)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오늘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빠진 신학을 했고, 예루살렘 회복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빠진 신학을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실재를 전제하는 신학을 해야 합니다."(저자 서문, p. 26, 대체신학의 실제와 대안을 멋지게 제시하였다)

'성경, 빅 픽처를 보라'(김인식, 두란노, 2021)의 저자는 장로회신학대학원(M. Div), 미국 풀러신학교(Th.M. D. Miss), 미주장로교신학대학원(Ph. D). 1985년 캘리포니아, 벤



배안호 선교사

나이서 웨스틀힐 장로교회 개척, 33년간 목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33대 총회장 역임. 2016년 킹덤월드 미션(Kingdom World Mission) 설립 대표. '이스라엘 목회자/선교사 세미나'를 미국과 한국과 예루살렘에서 개최. 미주장로교신학대학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역사' 강의. 저서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이 있다.

서평자는 저자가 선정한 7개의 핵심주제들, 1-7장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서에서 부록으로 다른 '대체신학교과 회복신학'(36개의 Q&A) 부분을 중심으로 서평을 할 것이다.

1.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기록!

"하나님의 처음 비전은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 보다 포괄적 최종 비전을 밝히 드러낸다" (p. 30). 성경의 결말은 하나님의 마스트 플랜(master plan)인 새 예루살렘에 수렴(收斂)된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이스라엘 땅(겔 31:8-9)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며 다스리시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부활한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요 영원히 살곳이다.

하나님의 마스트 플랜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언약(言約, 베리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 준다. 역사(歴史)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 왔음을 증언한 기록이다.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축복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출4:22)라 부르셨

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을 세상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축복해 주셨다.

"실제로 유대인은 수 많은 발명의 업적을 남겼고, 노벨상 25%, 미국 최상위 대학교수 20%, 미국 억만장자의 삼분의 일, 가장 부유한 미국인 상위 40명 중 40%, 뉴욕과 워싱턴 D.C.의 선도적 법률회사들의 파트너 40%를 차지하며,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다" (pp. 87, 88,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탄생하셨다)

'예루살렘 언약'(겔16장)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언약은 언제 성취되는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배반한 언약은 모세 언약으로,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으로 본다. 그러나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 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새 언약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면,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 할 일"(겔16:63)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언약이 성취될 때는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pp. 98-99)

예루살렘 언약은 그간 필자(서평자)가 잘 모르고 있었다. "멸망받아 마땅한 수많은 죄악을 범한 가증한 예루살렘 도시가 용서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 이 엄청난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p. 100) 이사야 24장 23절의 문자적인 성취인 것이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할 놀라운 일이다.

예루살렘 언약은 장차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민족적 회개와 각성, 구원 이후 하나님 이스라엘에 다시 세우실 영원한 언약이다(겔16:59-60). "아브라함 언약부터 예루살렘 언약까지 모든 언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에서 통합되며 성취된다.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는 메시아 왕국 때와 그 이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했을 때 마침내 온전히 실현될 언약이다" (사65:17-18). 이 언약이 성취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기쁨의 성으로 재창조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 (p. 100)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가나안) 땅 언약, 모세(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의 통합적 성취를 메시아 왕국(천년왕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임함으로 완성될 것이다" (p. 101)

2.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속2:8), '내 아들 내 장자' (출4:22)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셨다.(출4:22)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속 2:8) 보호하고 지킨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창12:3).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편박하는 것(반유대주의)은 이스라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최근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반유대주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성경의 중심 작은 나라, 이스라엘(땅)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뉴스의 중심이 되어왔다.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편박 받는 원인의 무엇일까? 반유대주의는 뿌리는?

서너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유대인의 뿌리깊은 선민의식과 배타성과 우수성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 하나님의 온혜로부터 영원히 거부되었다는 잘 못된 믿음으로 인한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무섭고 끈질긴 편집의 원인은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이 무서개에 갇히게 되고 결국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pp. 138-39, 반유대주의의 배후는 사단, 그 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문이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1543년)에서 회당을 불태우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채/탈무드를 몰수하라. 랍비가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통행권을 박탈하라.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라. 강제 노동을 부과하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이어받은 이가 히틀러다. 600만 유대인의 죽음을 가져온 흘로코스트는 인간의 잔혹함을 처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반유대주의가 기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재탄생시켰다."

〈다음호에 계속〉

에 둘러싸인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불쌍한 이스라엘

반유대주의자들은 너무나 많다. 무슬림 반유대주의/나치 반유대주의/인본주의 반유대주의/기독교 반유대주의/유엔 미디어 정치/과학 등 기타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자들의 사면초가상태다. 그 중에서 기독교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 중심에는 대체신학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기독교 반유대주의는 대체신학을 넣었고 대체신학은 기독교 반유대주의를 강화시켰다. 대체신학은 교회가 전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파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교회가 그 모든 언약들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에 대해 도리어 그것이 교회가 받을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대체신학은 결국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요, 자가당작(自家撞着)이다. 사실상, 서평자는 오랫동안 대체신학이 정통신앙의 신학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 신앙서적과 설교를 수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탁월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반유대주의에 앞장섰다.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콘스탄티누스, 크리소스토, 제롬,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가 반유대주의자들이었다. 아마도 이 서평의 독자들 중에 상당수는 놀랄 것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1543년)에서 회당을 불태우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채/탈무드를 몰수하라. 랍비가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통행권을 박탈하라.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라. 강제 노동을 부과하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이어받은 이가 히틀러다. 600만 유대인의 죽음을 가져온 흘로코스트는 인간의 잔혹함을 처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반유대주의가 기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재탄생시켰다."

〈다음호에 계속〉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LEARN MORE

2025 NICHE BEST SCHOOLS

QR Code

미얀마 강진 6개월 아동들 불안과 두려움 여전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학용품 키트를 받은 아동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 건축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6개월 전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돼 현지 주민 9백만 명이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아동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는 이미 분쟁과 기후위기로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2천만 명이 식량,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미얀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7.7의 강진으로 3천8백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아동들의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가정은 피해를 입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아동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가족과 만달라이 지역에 사는 17세 아동 미얀 투(가명)는 “지진 당일 혼자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파괴적인 지진을 겪은 후 여전히 두려워하며 높은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

미얀 투는 “우리 집은 지진으로 기울어졌고 흙에 파묻혔다. 위에 있던 물건이 전부 떨어졌다”며 “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진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인도 우타라칸드주 첫 기독교인 무죄 판결, 종교 자유에 중요한 선례 남겨



©pixaba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우타라칸드주에서 종교 전환 금지법으로 기소된 첫 기독교인이 4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일(이하 현지시각). 이는 2018년 법 제정 이후 첫 무죄 판결로, 종교 자유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CDI는 지난 9월 17일, 나이니탈 지구 람나르 법원의 안주 치안판사가 난단 싱 목사(본명 나렌드라 싱, 널리 알려진 이름은 난단 싱 비슈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싱 목사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25명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던 중 마을 주민 30여 명이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불법 개종 시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CDI는 난단 싱 목사가 당시 경찰서에 하루, 하드와니 교도소에 일주일간 구금 됐으며, 아내와 세 살 딸 역시 일시적으로 경찰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힌두교도 자그디쉬 찬드라의 진술에 근거해 사건을 기소했다. 찬드라는 목사가 약 6개월간 기도회를 열며 빈민과 하층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여섯 명의 증인을 불러냈으나, 대부분 목사의 개종 강요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증인은 자신과 가족이 종교 전환을 강요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사 담당 경찰관 역시 ‘불법 개종’을 입증할 만

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CDI는 난단 싱 목사가 긴 재판 기간 동안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으나 체포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아이를 잃었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출석 의무로 직업 활동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며 신앙의 힘으로 버텼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적 기도 모임은 개인의 종교 자유에 속하며, 이를 불법 개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도,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단순한 소문에 의존한 간접 증언자”라며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고, 목사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CDI는 이번 무죄 판결은 종교 자유의 헌법적 보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향후 전환금지법 남용을 막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도 이어진다.

한편,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스는 인도를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11위로 꼽았다. 인도는 2013년 31위에서 점차 순위가 하락했으며, 힌두 민족주의 정권 침공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과 괴롭힘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정년기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복음화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면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이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예배기도회 오전 11: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예배 예배 세벽 6:30
EM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11:0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11:0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11:00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11:00

김기섭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예배 11:00

고광선 담임목사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정년기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복음화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면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유철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꾸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장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학교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성령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칼과 깃발이 아닌 십자가를 불들 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 터내셔널(CDI)은 짐 이튼의 기고글인 '폭력의 시대에 화평게 하는 자를 위한 절규'(A cry for peacemakers in a time of violence)를 1일 게재했다. 짐 이튼은 피스빌더스 테이블(Peace-Builders Table)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컨버지 월드 와이드(Converge Worldwide)의 다양성 공동 디렉터로 섭기고 있다.

그는 또한 세계복음연맹(WEA) 산하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PRN, Peace & Reconciliation Network)의 미국 공동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늘날 미국은 폭력에 사로잡힌 채, 무엇을 느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헤매고 있다. 찰리 커크(Charlie Kirk), 이리나 자루츠카(Iryna Zarutska), 멜리사와 마크 허트만(Melissa and Mark Hertman), 그리고 교실과 예배당에서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의 이름이 그 비극의 증거이다.

우리의 민족적 상처는 늘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덮인 줄 알았던 딱지가 또다시 벗겨지고, 공동체는 더욱 날카롭게 분열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외치셨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고치려 한다.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평화가 없다.”(예레미야 6:14, 새번역)

오늘 미국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 우리는 슬픔을, 분노를, 때로는 절망을 느낀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단지 폭력 행위만이 아니라, 공기 속에 무겁게 드리운 폭력의 영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고 느낀다. 한쪽 편을 택해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우리의 편은 정의롭고, 다른 쪽은 악하다고 선언한다. 민주당을 위한 희생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공화당을 위한 희생에는 침묵하거나, 혹은 반대로 공화당을 위하여 민주당의 죽음을 무시한다. 하지만 생명이 단지 당파성으로만 정의되는가? 모든 인간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기 1:26-27)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지을 받아 거룩한 존재임을 선포한다. 태아이든 노인이든, 인종과 문화, 국적과 이민자신분을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나 성별, 혹은 정치적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

미국만이 이런 분열과 폭력의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언제나 복수하



짐 이튼. [@linkedin.com](https://www.linkedin.com/in/jim-ethan-0119a111/)

고 싶어 하는 본능, 잘못을 갚아주고 싶어 하는 충동과 싸워 왔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팔레스타인, 러완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가 보여주듯, 폭력으로 폭력을 맞서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다음 폭력의 무대를 준비할 뿐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오는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간디 역시 이렇게 말했다. “적과 맞닥뜨릴 때마다, 사랑으로 그를 이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르심은 분명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마태복음 5:9)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인자(人子) 앞에 나아가 그 밭 아래 앉아 배워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은 깃발이나 정당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의 상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다. 점점 더 위험한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불신이 높아질 때,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단 하나의 부르심에 헌신해야 한다. 예수의 길은 ‘빨강과 파랑’, ‘좌와 우’라는 정치 구도 안에 neatly 들어맞지 않는다. 그것은 초월적이며, 복음의 평화에 뿌리를 둔 길이다. 그것은 신정정치를 향한 길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예수의 길을 본받아 서로 다른 문화, 계층, 종교를 가진 이웃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길이다.

이것은 두려운 시대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은 더 작은 야망들을 버리고 예수의 나라를 향한 부르심에 다시 헌신할 때이다. 지금은 세계 교회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워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예수의 나라에 뿌리내린 희망을 세상에 보여야 할 때이다. 그 희망은 치유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불러오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다.

최승연 기자

美 ‘학교에 성경 가져오는 날’ 약 200만 학생 참여

마이 크리스천 데일리(My Christian 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목) ‘학교에 성경 가져오는 날’(Bring Your Bible to School Day) 행사에 미 전역 50개주 5만 개 이상의 학교에서 참여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져와 학우 및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신앙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주최하는 ‘포커스온더페밀리’(Focus on the Family)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30만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교회와 학교들의 참여가 늘면서 그 규모가 1.5~2배로 커졌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실제 참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는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책상에 놓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질문과 토론을 통해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드는 데 있

다. 포커스온더페밀리는 이를 위해 참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대화 가이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신학·변증 자료, 법적 참고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테네시의 한 초등학생 데이비드(David)는 성경을 책상 위에 놓고, 이를 본 교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학급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루시(Lucy)는 하고 전 친구들에게 성경구절과 복음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생활 속에서 신앙을 공유했다.

주최측은 “학생들이 단순히 성경을 지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 교사에게 복음을 나누며 질문을 받고 신앙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미엘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이기도회(미지방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번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한글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부 07:30AM -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0:30
유아, 유치부(K-2) 오전 10:30 학교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LA 북부 지역,拉斯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 오전 11:00
주일2부예배(화-토) 오전 11:00 새벽기도회(임금제) 오전 6: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모모임(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학여원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818) 832-6628 www.churched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0:3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노트북 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온라인 예배 오후 6:00(화-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2:30 새벽예배 주일 오후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l.org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8:00 금요성경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urubk.com/anc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지동근 담임목사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f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30 AM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824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cc/index.php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체중제거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THE EPWORTH FIRE ENCOUNTER

Return to the Root. Rise with the Flame

뿌리로 돌아가. 사중복음의 불꽃(웨슬리의 불꽃)과 함께 일어납니다



2박 3일간의 영적 집중, 신학적 깊이, 그리고 소명 회복의 시간

2025. 10.22(수) - 24(금)

주 제 : 웨슬리와 사중복음
등록 시작 : 10월 22일(수) 정오 12:00부터 현장 등록 첫날 강의가 있습니다.

장 소 : Epworth By The Sea
100 Arthur J. Moore Dr, St. Simons Island, GA 31522
(912) 638-8688

대 상 : 모든 그리스도인 및 사중복음에 관심 있는 분
예비 등록기간 : 2025년 8월 30일(토)까지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축소 사정에 따라 지방회 안내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합니다.

참가자 구성 : 총 정원 : 30명
(교역자 : 20명, 평신도 : 10명) - 최종 참가자 발표일 : 2025년 9월 2일(화)

참가비 : 전액 무료 (교제 및 숙식 제공 / 단, 사전 신청료 \$100.00 필수)
수료식 시 어비 명목으로 전액 반환됩니다.
※ 중도 퇴소 시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The Epworth Fire Encounter 포스터

미국 사중복음 연구소 주최, 웨슬리와 사중복음 세미나 열린다

미국사중복음연구소(이사장 신태림 사도, 소장 류종길 목사)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세인트 사이먼스 아일랜드 웨슬리에서 '웹워서 파이어 인카운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웨슬리와 사중복음'을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및 사중복음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영적으로 집중하여 신학적 깊이, 그리고 소명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3개월 전에 정원 30명 등록 조기마감되는 등 미 전역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이고 있는 가운데 총 36명이 최종 등록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류종길 소장은 초대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The Epworth Fire Encounter* 집회에 함께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집회는 이미 3개

월 전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총 36명의 귀한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은 주께서 친히 계획하신 섭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미주 종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그리고 한국성결신문사 편집국장까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세계 성결교회 복음의 미래를 향한 역사적 발걸음이라 확신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다림의 장소이자 성령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Epworth* 집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각 심령 위에 부흥의 불길을 새롭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어 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요한 웨슬리, 디엘 무디, 이성봉 목사

와 같은 부흥의 인물들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만히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이번 집회가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단과 혼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주사중복음연구소는 본 집회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The Epworth Fire Encounter*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앤더슨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딜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

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가장 어두운 골짜기가 가장 밝은 지혜를 낳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가 없습니다. 정상은 머물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섭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덕에 머물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낮은 언덕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고백합니다(시 23:4). 그가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양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높은 산에는 깊은 골짜기가 함께 합니다. 인생에는 어두움과 빛이 함께 존재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운 골짜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두운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 예천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와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침착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는 감춰진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골짜기 속에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가장 밝은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고통은 교훈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두운 골짜기에 신비로운 빛이 임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 지혜의 빛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잘 통과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깊은 깨달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양쪽한 꾀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비롭게도 밝은 지혜가 자라는 곳은 바로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며 영혼이 정화됩니다.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눈물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짐작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의 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이라”(시 23:4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하). 요셉도 어두운 구덩이에서,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시 104:10).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니이다”(시 84:6). 놀라운 고백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샘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마치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골짜기에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힘이 들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때 어두운 골짜기 가슴겨운 밝은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깊은 골짜기일수록 어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가장 밝고 깊은 지혜가 탄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정상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상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을 섬김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상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정상을 섬김의 기회로 삼는 생애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섬길 때 깊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험난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숨이 차합니다. 때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위험한 사다리를 사용할 때도 있고, 뱃줄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산과 같은 높은 정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독하게 춥고,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 수

“고통은 교훈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진유철 칼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문제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극 할 때처럼 검은 색 옷 입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걸모습만 보고는 속기가 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4,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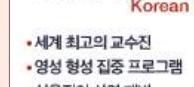
예수님은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열매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의 8가지 열매도 성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5:22-23) 교회에서의 종교행위는 연극배우가 연기하듯 거짓으로도 가능하지만, 성품은 예수 믿어 거듭남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얇은 종이 한 장이라도 벽에 붙어 있

으면 강한 존재가 됩니다.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종이가 아니라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가 공격했다가 박살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나의 삶에 대적이 일어나고 고난이 생길수록 말씀을 불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갑자기 어둠이 덮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부모의 손을 더 꼭 잡고 부모에게 붙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대적이 생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붙어서 이 상황을 지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힘든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고 크게 만드는 변화의 길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보” 검색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보신학교”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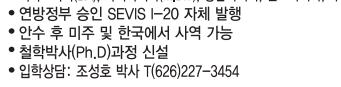
설립적인 사업 대비

온라인 수업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학사(M.Div), 신학대학원,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TRACS 책임자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총장: 이상훈 박사

21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하국 홈페이지 www.mb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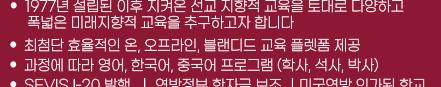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리지향적 교육을 주제로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64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명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 | | |
|--------------------|-----------------|--------------------|
|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 부황 20회 (혈액순환) | - 훈육 1시간 |
| - 뜰 10회 (체온상승) | - 마사지 30회 |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구봉주 칼럼

친구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희비가 존재하지만, 친구는 아름다운 추억이다”라는 짧막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고, 영화를 관람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내향적 성격이라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형을 제 친구 그룹에 조인하게 하여 같이 놀 정도였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는 모범생들과 친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자의로 그만두면서,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보다 열 살에서 심지어 스무 살이 많은 분들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대 당시에는 그러한 다양한 친분과 친구 관계가 제게 큰 위로와 재미를 주었습니다. “친구인가? 가족인가?”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친구”라고 대답할 정도 친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친구가 제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그간 제가 친구들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IMF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보낼 마음을

벗, 친구, “함께”라는 주제는 인간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in one nature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지만, “three persons 세 분”이신 “trinity 삼위일체”라는 자신의 본성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워 보이는 반면, 함께 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에는 어떤 힘이 있는 듯합니다.

오래 전 “친구”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우정과 일탈이 아름답게 그려졌으나, 사실은 친구 관계 속에서의 배신과 죽음, 즉 안타까운 비극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친구 관계에

갖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제게는 친구에 관한 3가지 통찰이 생겼습니다. 첫번째 통찰은 “진정 나를 사랑하여,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친구는 주님 한 분뿐이다”라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을 털어 놓고 고백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도움을 구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두번째 통찰은 “가족이야 말로 진정한 친구다”라는 통찰입니다. 한국에는 어릴 적부터 친한 두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저를 무척 아껴줍니다. 친구들 중에 유일한 목회자라고 대접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서, 괜히 제가 툭하고 던진 신앙적 조언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럽고, 또 목회라는 특수한 공감대가 없어서, 자주 연락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두 친구 외에도 제게는 무척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내이며, 이제는 사회인과 대학생이 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딸들에게 잔소리도 듣고, 모르는 걸 묻기도 하고, 아내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그리고 친구에 관한 저의 마지막 통찰은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영적 친구, 동역자라는 통찰입니다. 물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언니 오빠 형님 동생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직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관계는 더 없이 친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로 모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신앙과 삶을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친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장례예배를 접례해보면, 결국 유명인이 아닌 다음에야 조문객 대부분이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울어줍니다. 그들이 챙겨 줍니다. 심지어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생기면, 다같이 내 일처럼 기뻐해줍니다. 시기 질투할 겨를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친밀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다시 고민하고, 재정립하며, 돈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종기 칼럼

정상에서 구약성경의 능선 보기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을 살펴볼 때, 대체로 3가지 해석학적 능선은 신명기 사관(Deuteronomic History), 역대기 사관(Chronicler's History), 그리고 지혜 전통(The Wisdom Tradition)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체 성경 66권 중,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각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성격이 구별되는 다양한 책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법전이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서로 된 다양한 선지서가 16권이나 있고 또한 시가서와 지혜서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책을 읽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39권 중, 모세 5경이라고 부르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책이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와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출 10-24장)을 담고 있고, 레위기는 제사를 위해 부가된 책이며, 신명기는 광야 40년이 끝날 때는 새 세대를 위하여 제시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5경

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교과서입니다. 특히 이 책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법전이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신명기의 가르침과 역사관은 역사를 조망하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모세 5경과 이후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재해석되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멸망 이후, 왕과 선지자의 길항(抵抗) 관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과 메시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느헤미야와 같은 책은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의 관점, 역대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선지자적 관점에서 물러나, 성전 중심의 제사장적 관점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역대기적 관점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소망의 메시야와 메시야 왕국을 멀리 바

라보았습니다.

신명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이 말씀 중심이라면, 또 다른 구약의 능선이 바로 지혜 전통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이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선지자 중심의 전통이라면, 역대기적 관점은 회개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주도하는 제사장 중심의 전통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혜 전통은 유대와 이방을 초월하고, 우주적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망라하는 보편적 관점을 탐구합니다. 이 전통은 하나님을 지혜로운 창조주로 이해하고, 창조와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심오한 지식과 비판적 지혜(첨언, 흡기, 전도서 등)를 추구하며, 중근동의 타국에서도 수집합니다(잠 31:1-9).

신명기 사관이 반듯함의 정격(正格)을 가르치고, 역대기 사관은 더욱 영광스런 예배와 소망의 높음, 곧 고격(高格)을 가르친다면, 지혜 전통은 삶의 모순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파격(破格)을 가르칩니다. 산에 올라서는 일은 어느 능선이나 쉽지 않지만, 어느 길이라도 정상에 오를수록 시야가 열리며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물류 1-877-580-2424 삼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커리,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이탈리아,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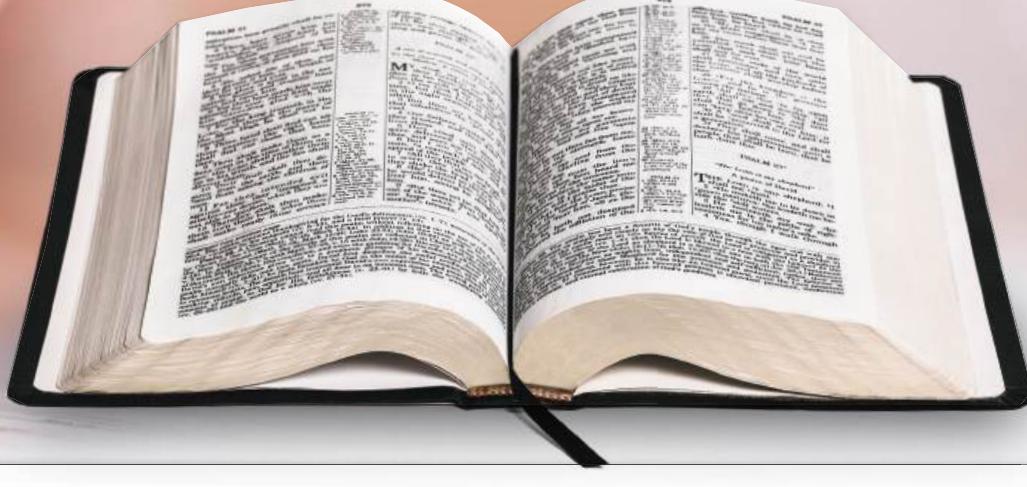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제3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불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장학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나이 만14세~23세)

등록신청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5년 11월 8일(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5년 11월 15일(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5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장소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장학금 전달식 2026년 7월 중(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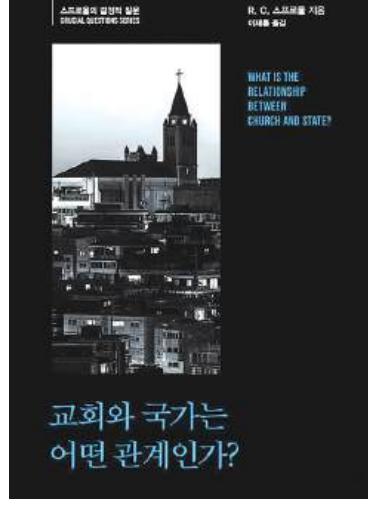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일보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주권은 국민에게, 그 국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교회와 국가, 이제 제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길 바라며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R. C. 스프로울 | 이제롭 역
생명의말씀사 | 88쪽
10,000원

요즈음 우리의 교회들은
정치적 위기와
극단적 양분화로
요동치는 한국 사회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랑의 한복판에
있는 듯하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그 양상도 극단으로
나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세속 국가의 국민'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숨을 돌리고
곰곰 생각과 태도를
고를 때다

R. C. 스프로울(1939-2017)은 '결정적 질문 시리즈(Crucial Questions Series)'를 통해 47가지 질문에 답한다. 짧은 소책자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나는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고통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분노는 언제나 죄가 되는가?' 등 다채로운 질문에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아마존에서 킨들 버전으로 이 시리즈의 많은 책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생명의말씀사에서 '리릭스 북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4권 정도 번역된 적이 있다(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2012). 이번에 출간된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는 2019년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서 출간됐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규정하는 간략하면서도 분명한 책이다.

저자 스프로울은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성경의 무오성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변증하는 일에 평생 헌신했다. 리포메이션 바이블 칼리지 초대 총장이자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대표로서 기독교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전념한 탁월한 교사이자 저자, 강연가였다. 세프드 콘퍼런스에서 존 맥아더 목사와 패널 토의를 하던 스프로울을 지켜보면서, 그가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에 경외를 느끼며 암도되어 청중에게 전달한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는 그래서 단순히 저자 개인의 의견이나 분별을 담아낸 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핵심적인 답을 정리한 책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진술서에서 명하면서 많이 고민했다고 밝힌 스프로울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국가적 사안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자세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밝힌다. 오늘날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양극단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은 정치적 운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고, 교단의 성경적 분별에 따라 징계를 내린 학생을 국가가 다시 받아줄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반면 정부 정책이 명백히 성경에 반하는 것임에도 교회는 아무 소리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르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스프로울은 먼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로마서 13장을 통해 입증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권력자가 정말 악하고 부패하기로 유명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다. 하지만 동시에 스프로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용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세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거스른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행할 권세는 메시아뿐이다. 저자는 또한 시민으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과 순종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다면,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거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금지할 때, 최상위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역자인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교회가 결탁한 경우, 결과가 늘 좋지 않았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모두 교회는 교회의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고, 국가는 특정 종교를 편애하며 시민 모두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에 따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공권력으로



▲국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에스더기도운동

로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에 밝히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국가에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만일 교회가 국가에 대항하여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불복종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면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이다(역대상 29:11)"는 고백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도 이 땅

의 시민이다. 이중 국적을 가진 존재이지만, 이 두 나라를 모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 짧지만 핵심적인 답으로 우리에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스프로울의 책을 통해, 양극단으로 치우친 교회의 입장이 핵심에 있어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이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니
이사야 33:5

The Lord is exalted, for he dwells on high; he will fill Zion with his justice and righteousness.
ISAIAH 33:5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토크 셰프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천병근과 김기창 등

해방 후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작품 활동이 두드러졌던 이유

1. 일제 가혹한 탄압으로 활동 못해
2. 월남 미술인들이 주로 활기 생겨
3. 제헌 국회부터 신앙의 자유 공인

월한국 크리스천 미술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해방을 전후로 해서이며, 더 자세히는 6.25 전쟁을 전후해 크리스천 작가들이 급증하고 작품 발표도 활발해지면서다.

해방 이후 기독교의 역사를 살핀 김양선 목사의 『한국기독교 해방 십년사(대한예수교 장로회, 1956)』 중에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 사업 부문을 따로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에서부터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음악, 기독교 문화, 기독교 출판, 기독교 문화단체, 그리고 기독교 미술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종교미술로는 6.25 사변까지 약 25년간 중앙기독교청년회관 회랑에 걸려 있던 이당 김은호 화백의 '예수 승천도'가 이 땅의 기독교미술을 웅변했다고 운을 뗀 다음, "해방과 함께 우리 교회는 우수한 기독교미술을 탄생시킨 천재화가 천병근, 김기창 양 화백을 가졌다"며 천병근의 〈기독 의용사〉(1950),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1952-1953)를 소개했다.

이어 이연호 목사의 "해방 10년의 회상"(『기독교계』, 1957. 8월호)에서도 당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이연호 목사는 해방 후 크리스천 미술 활동에 대해 김은호를 언급한 다음 천병근·김기창의 대표작을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언급했다. 김기창은 전쟁 기간 중 〈예수 일대기〉를 완성했고, 천병근의 〈기독 의용사〉, 〈세례〉(1951), 〈어린양〉(1951), 〈삶〉(1953) 등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덧붙여 장운상이 예수 탄생 장면을 성탄 카드로 제작한 점, 이연호가 1955년 동방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진 것과 1950년 이후 『타임』과 그밖의 외국잡지에서 그의 작품을 보도한 점, 문자화가 이광혁이 화면에 성경

구절을 한글로 일일이 새겨 형태화한 〈마태복음〉(1952), 〈요한복음〉(1952), 〈누가복음〉(1956), 〈기독전신상〉(1957) 등을 소개하였다. 이연호는 흥미롭게 이들을 유럽의 화가들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김기창을 들라크루아, 장운상을 루벤스, 천병근을 마네시에, 이광혁을 프라 안젤리코와 같다고 했다.

해방 후 교회에서도 교육용으로 시각예술을 적극 활용했다. 이연호는 성화연구사를 초창기 기독교미술에 공헌한 단체로 들면서 "인쇄술이 출현한 한국에서 여러 악조건과 싸우며 금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했다. 성화 제작사에서 주최한 "시각전도를 위한 화극(畫劇) 모임이 작년에 있었으나 응모 9점 중 4점이 당선되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화극'이란 딱딱한 종이에 연속적으로 그린 그림을 상자 모양의 틀 속에 넣어 순서대로 한 장씩 어린이들에게 보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놀이를 말한다. 이 동화그림 놀이는 '기미시바이(かみしばい, 종이연극, 조희연극)'로 불리며 일제 말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전세(戰勢)가 기울자 다급해진 일본 총독부는 국민정신 종동원의 일환으로 '기미시바이'를 내세워 전시 선전수단에 사용했다.

국내에는 해방이 되어서도 일제 말기 전시 체제적 문화가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미시바이'는 관동대지진(1923)과 쇼와 공황(1927)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엿장수(飴壳り)가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오락용으로 발명됐고, 그 후 교육적인 목적이나 신앙 전도를 위해 제작된 '교육 기미시바이'로 발전됐다.

이연호가 '시각전도를 위한 화극'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작가 히라사와 사다하루(平澤定治)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연호가 한국 작가의 화극을 말할 때, 일본의 전도용 '교육 기미시바이'를 염두에 두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출품작 수준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작품의 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아직도 전도요원의 감이 있다"고 하여 응모된 '화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김양선, 이연호 목사가 기술한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크리스천 작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일제 강점기에는 보기 힘들었던 일이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작가들의 활동을 촉진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일제 때는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작가들이 힘을 쓸 수 없었다. 일제 말기에는 한국교회 천황화 실천 발표, 예배 전 동방요배, 교인 집마다 작은 신사 설치, 사상법 구금령, 일본

제 기독교로 바꿀 것 요구, 교회 전쟁물자 현납, 교회 종 공출, 서양 선교사 추방, 지도급 목사의 신사건축 동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전국적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한국교회 해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크리스천의 사회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소수 크리스천 예술가들도 이에 실망해 소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조용히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자, 비로소 크리스천 작가들이 기지개를 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월남 미술인들의 이주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북한 지역에 진을 친 소련군과 그들의 공산화 전략은 한국교회사에 참담한 비극을 안겨줬다. 공산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엄청났고, 전쟁 직전에는 정점을 찍었다. 신자들에 대한 감시와 세뇌 공작, 교회 재산의 몰수, 성직자 및 지도자들에 대한 심문과 납치, 학살, 살해 등 대대적인 박해가 자행되었다(백상현, "북한정권의 교회탄압", 국민일보, 2015. 8. 19).

핍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크리스천들은 6.25 전쟁 기간 중 월남했다. 이 가운데는 박수근, 홍종명, 김학수, 윤종식, 황용엽, 황유업, 박고석, 신영현, 정규, 이정수 등 미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한 교세를 자랑했던 북한 지역은 신자 규모에 있어서도 남한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월남 미술인 가운데는 본인이 크리스천이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월남 미술인들은 남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호방하고 토속적인 조형 특성으로 미술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셋째,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것이다. 제헌 국회가 마련한 헌법 조안 제12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현행 헌법 제20조 제1항 참조)"고 되어 있다. 헌법 조안에 규정된 종교자유 조항은 각 기관과 미군정의 종교자유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이 헌법 조안은 제헌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대한민국 헌법'으로 확정되었다(방성주, 양준석, "1948년 종교의 자유 조항 제정의 정치사", 『한국정치학회보』 53집 5호, 2019, 118쪽).

좌의 계열 연합체 민주주의 민족전선 역시 헌법 시안에 종교자유 조항을 규정했으나, '국가질서와 인민의 이익에 배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조건을 달았다(같은 논문, 113쪽). 공동의장 박현영은 '종교가 과학의 진리와 배치된다'는 인식을 갖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는데, 그가 말한 '인민'은 자본주의 좌취계급인 부르주아와 대척지점에 놓인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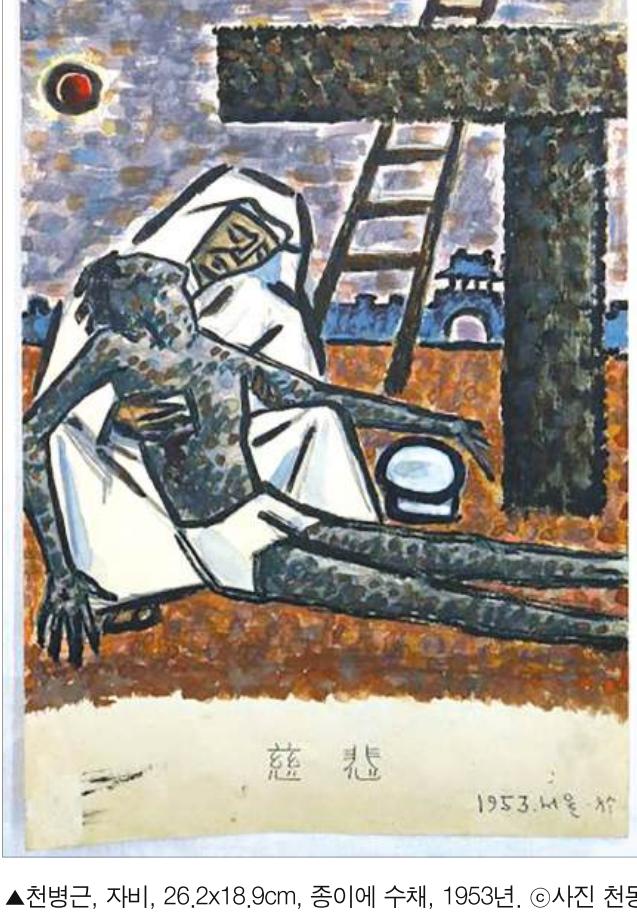
다시 말해 '인민의 이익을 배반'하지 않는, 즉 프롤레타리아 혜계모니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종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 안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사리지고 말았다.

건국 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한 것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고 사회 각 방면에 크리스천의 사회적 참여를 가져온 것처럼, 예술 분야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마련했던 것이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김기창, 최후의 만찬, ©서울미술관



▲천병근, 자비, 26.2x18.9cm, 종이에 수채, 1953년. ©사진 천동 옥제공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2025 G2A’ 10시간 동안 1만 5천여 명 참여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 살아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

모든 민족과 영역에 복음을 전 한다는 주제로 진행

프랜시스 챈 목사, 김상인 목사, 황덕영 목사 등 강사로 참여
부흥·부르심·제자도·열방 네 개 세션으로 진행돼

김상인 목사 “부흥은 씨앗 심기의 열매”

청소년·일터·캠퍼스 등 6개 미션필드 기도

130여 개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한 대규모 선교운동 ‘2025 G2A 집회’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열렸다. 집회는 정오부터 1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 5천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해 열기를 더했다.

‘G2A’는 ‘Go To All’의 약자로, 모든 사람·민족·영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총체적 선교운동이다. 이번 집회는 ▲부흥(Revival) ▲부르심(The Call) ▲제자도(Discipleship) ▲열방(All nations) 등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 후에는 찬양과 말씀선포, 그리고 청소년·복음전파·신학생·목회자·캠퍼스·일터·열방 등 6개 미션필드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은 파송과



2025 G2A 집회가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도로 마무리됐다.

미국 코너스톤커뮤니티교회 프랜시스 챈 목사를 비롯해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제이어스, 아이자야식스티원, 팀룩워십 등이 예배 인도를 맡았다. 첫 강사로 나선 김상인 목사(움직이는 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와 영적 유산을 소개하며, 다음 세대가 그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고백을 인용하며 “부흥은 심

긴 씨앗의 열매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넘어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씨앗 심기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 위에 고백을 세우리니’라는 말씀은 건물이 아닌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뜻한다”며 “오늘 함께한 3,401개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살아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의 열매는 부모 세대의 기도와 순교자의 피, 심간 씨앗의 결과”라며 “형식적 신앙이 아

닌 살아 있는 믿음을 촉구한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의 특징은 ‘애프터 액션(After Action)’을 통해 참석자들이 일상에서도 선교적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각 미션필드는 신앙적 결단 이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자 및 단체와 연결했다. 청소년 미션필드에서는 청년들이 무대에 올

라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주최측은 82개 도시에 ‘신앙의 광장’을 세우고, 전국 5,652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확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 연결 ▲기도모임 콘텐츠 제공 ▲지속 가능한 단체 소개 ▲안전한 신앙 환경 조성 ▲지역 교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복음전파 미션필드에서는 초신자와 관심자를 대상으로 8주간 온라인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과정은 ▲복음전파 QT(1주) ▲복음을 발견하다(4주) ▲복음에 기준을 세운다(2주) ▲복음으로 살다(1주)로 구성돼 있으며, 강의와 활동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일상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도록 돋는다. 일터 미션필드에서는 2주마다 온라인 모임을 열어 ▲일터와 노동관 ▲일터와 소명 ▲일터와 선교적 삶 ▲일터와 선교 공동체 등의 주제를 다루며, 일터스쿨과 ‘2030 일터 콘퍼런스 & 게더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집회 현장인 제3홀에는 6개 미션필드 관련 ‘애프터 액션’ 안내 부스를 비롯해 신앙 상담 부스와 다양한 기독교 단체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을 도왔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1면 기사 <아프리카 목사, 20만 명>에 이어서

그는 “아이들과 청년, 어머니들이 악을 구할 수 없고 병원이 문을 닫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다”고 전했다.

CP는 마칸다 목사의 이번 방문의 목적은 단지 구호 요청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브루클린 태버내클교회에서 열린 ‘더 콜링(The Calling)’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복음 중심의 지도력 회복과 아프리카 교회의 미래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는 제게 목상

하고 새롭게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마칸다 목사는 케냐 침례교회와 전국교회협의회(NCCK)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온 인물로, 30여 개 개신교 교단과 3천만 신자를 대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케냐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of Kenya)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1,500만 명 이상의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했다. 그는 “아프리카 복음주의의 부흥은 단순한 종교 현상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 문맹과 절망 속에서 복음이 주는 희망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고 새롭게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 복음주의자는 1900년 인구의 1.7%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2%로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 수의 절반 이상이 2050년 경 아프리카에서 나올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젊은 세대의 폭발적 증가와 선교의 확산이 복음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며 “향후 10~15년 내 4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U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교회변혁네트워크(Church Transformation Network, CTN)와 협력해 20만 명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CTN의 제리 루브(Jerry Rueb) 목사는 “현재 이미 6만5천 명의 목회자가 아프리카, 태국, 인도에서 훈련 중”이라며 “AIU와의 협력으로 이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아프리카복음주의연맹과 협약을 맺고, 애티오

피아, 우간다 등 주요 국가에서 수

마칸다 목사는 “아프리카의 95% 목회자들이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잘못된 가르침과 비성경적 행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르완다의 경우 신학 학위를 요구하지 못한 교회들이 9,000곳 이상 폐쇄됐다”며 목회자 자격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넬슨 마칸다 목사. ©Christian Post/Leonardo Blair

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해왔다.

마칸다 목사는 “아프리카의 95% 목회자들이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잘못된 가르침과 비성경적 행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르완다의 경우 신학 학위를 요구하지 못한 교회들이 9,000곳 이상 폐쇄됐다”며 목회자 자격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월드비전(World Vision), 미국 교회들의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루브 목사 역시 “마칸다의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운동”이라며 “적절한 지원이 지속된다면 10년 안에 백만 명의 목회자 양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쿠쿠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 구매, AVS상담(한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아이 학자금 상담했더니 주식을 팔아서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네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통비치에 살고 있는 주부 헬렌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10학년에 올라가는데 얼마전 대학 진학 상담과 더불어 학자금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 몰래 주식으로 4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며 저는 하나 있는 아이 교육 때문에 전업주부로 있어서 저희는 인컴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주식으로 해 놨는지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도 잠깐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아이 학자금 준비를 하는데 이 주식을 팔아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분이 생명보험을 팔려고 작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설명도 자세히 안해주셔서 질문을 하다 보니, 은근히 저희가 못 알아 드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해서 남편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면서 그 미팅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문선영씨 유튜브를 제가 종종 보고 있었는데요. 학자금과 생명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보려고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해 주신 그 분이 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정말 생명보험으로 주식을 팔아서 아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생명보험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날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제가 문선영씨에게 물어본다고 하니까 꼭 자세히 좀 물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미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님, 반갑습니다. 10학년 자녀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자금을

컨설팅을 받으셨네요. 대 사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9학년이 되면 이런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들 학자금을 모아서 대학 학비로 대주는 경우 아니라면 전략적으로 학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학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FAFSA는

색해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겠지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대학교의 장학금이 책정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성적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이라면 대학교에서 merit base로 풀 장학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경쟁이 높아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학자금을 따로 대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성적이나 특기 장학생이 아닌 경우라도 학생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필요 need base aid로 받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보조금, 지원금의 개념인데 당연히 깊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보조금이 바로 FAFSA(Th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지원을 받아서 학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이 학자금 상담했더니 주식을 팔아서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네요

문선영의 머니토크

검색하세요

문선영(MONEY TALK)

온퇴 보조 플랜으로 쓰 수 있는 혜택과, 냉체 생명보험 중에서 어떤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주식 만큼의 평균 이자를 받는 그런 혜택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전 생명보험이라는 돌하나로 네마리 새를 잡는 일석이거니와 복을 끌기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첫째 아이의 FAFSA 지원을 받기 쉬워져 지금 주식에 있는 돈을 아이 학자금으로 다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 둘째 부모님의 생명보험으로 인해서 사망시, 그리고 중병 진단시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혜택도 자녀나 부모님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며, 세 번째 나중에 생명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 밸류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쓰거나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제2기

We Bridge

교회 모집

We Bridge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목회자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We Bridge 교회 선정기준

1. 교회 설립 10년 미만의 교회
2. 자체 건물이 없고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의 교회
4. 담임 목사 나이가 59세 미만, 담임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5. 예배인원이 성인 40명 이하의 교회

선정된 교회에 주어지는 혜택

3년간 매월 \$500 지원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5일(토)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1일까지 개별통지

■ **문 의** :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a@gmail.com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We Bridge 사역 1기 감사 및 2기 출범예배



■ **날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 1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